

사설

총학, 유종의 미 거두길

다가오는 11월 셋째 주부터 다음 학생사회를 이끌어갈 후보자 등록 기간이 시작된다. 이는 본교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가 임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는 뜻이다. 한 학기를 무사히 마쳐 가는 제49대 서울총학 '이음줄'과 제30대 세종총학 '오늘'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학생사회는 재도약하기 힘든 침체기에 빠져 들었다. 작년 11월 연세대는 1961년 이후로 55년 만에 입후보 등록에 나선 선본이 없어 선거가 무산됐다. 본교도 비슷한 실정이다. 작년 11월 서울캠 총학생회는 하나의 선본이 출마해 단선으로 진행됐고, 세종캠은 개표 성사율이 미달 돼 올해 3월 보궐선거를 통해 총학생회가 당선됐다.

매년 낮아지고 있는 학생사회를 향한 관심을 대변하듯, 최근 총학생회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다른 아님 '구성원 간의 신뢰 회복'이다. '기분을 지키는 총학'이라는 기조를 내세우며 당선됐던 이음줄 선본도 임기 동안 학생과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무너진 신뢰를 다 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처럼 학생들은 매년 답습하는 형식적인 공약 사업보다 구성원 간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소통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총학생회의 모습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양 캠퍼스의 총학생회는 여전히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활동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학기 말을 맞이하고 있다.

선본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은 시행이 되긴 하지만, 그로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학생들에게 원활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낮아지는 학생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은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는 것이다. 각 총학은 선본 당시 내세웠던 공약들이 얼마나 이행했으며, 무엇이 남아있는지 학생들에게 꾸준히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2학기가 시작되고 고연전이 끝나면 각 단위의 학생계층에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실감한다. 일부 대표자들 사이에선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에는 1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학의 공약들이 올해로 끝나버릴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의식을 다음 대표자에게 전달하는 인수인계 과정 역시 중요하다. 총학을 향한 무관심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선 단발성 공약 이행이 아닌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교 캠퍼스의 총학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

성폭력과 무고에는 경계가 있다

시론



소병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사관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섞여 있다. 피해자가 무고죄의 가해자로 의심받기도 한다. 언뜻 생각하기에 성폭력과 무고는 서로 무유죄를 달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유죄-유죄 또는 무죄-무죄 판단도 가능하다.

여성단체는 성폭력에 한하여 무고죄 적용의 예외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로 출발한 형사소송이 무고의 가해자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사법체계는 증거로써 공소제기 여부와 유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진실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진실된 피해자가 무고의 가해자로, 결백한 자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두 범죄를 동시에 판단하려고 하면 더 높아진다.

둘은 다른 범죄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무고는 특수성을 지닌다. 성폭력의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물증이 없으니 유죄 입증도 어렵다. 반대로 무고의 입증은 쉽다. 형소법 제198조 3항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청취한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기억의 오류로 바뀌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모두 기록하기 때문에 변경을 인지하기 쉽다. 변경은 무고혐의로 인지된다. 가해자라고 생각했던 상대방에게 무고죄로 고소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무고가 대립된 가운데 무고혐의를 받는 자가 더 불리한 위치에 있다. 사정이 이러니 여성단체의 주장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형법 제156조의 무고는 피무고자의 명예와 법적 안정감 등 개인적 법익만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도 보호 대상이다. 후자를 고려한다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무고죄 적용 가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견지에서 보면 성폭력에 한하여 무고죄를 폐지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피해와 가해가 뒤섞이는 혼란은 양자가 국가기관을 처음 접하는 수사절차의 문제점 때문이다. 검찰사건사 무규칙 제70조에 따르면 검사는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 상대의 무고 혐의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성폭력 사건에 대입하면 먼저 성폭력의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그 후에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두 범죄를 동시에 판단하지 말고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성폭력과 무고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같은 날 작성하는 것은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이때 무고혐의를 받는 자는 자신이 피의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방어권의 행사도 어렵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규명하고 적절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

다. 그런데 두 범죄를 동시에 판단하려고 하니 성폭력과 무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신분이 뒤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언을 하자면 선(先) 성범죄, 후(後) 무고죄 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폭력 담당 수사관의 예단이 무고수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도 달리해야 한다. 성폭력의 증거는 범행 현장에서 발생하고 무고의 증거는 최초 신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사기관 내에서 진술의 형태로 발생한다. 두 범죄를 구분하여 판단할 시간적·공간적 여백은 충분하다.

개인적·국가적 법익을 분리보호하는 방안도 있다. 개인적 법익은 피무고자의 고소로써 보호할 수 있다. 그러면 관습적인 무고죄 수사도 줄일 수 있다. 국가적 법익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수사 중 무고혐의를 인지하여 보호할 수 있다. 무고에 대한 고소나 혐의 인지를 통해 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려면 형소법 제200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해야 하므로 방어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나아가 고소와 혐의인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하나의 실행행위에는 하나의 공소제기로 족하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수사에서 무고죄가 관행적, 혹은 가혹하게 적용되어 피해자의 지위까지 위협케 한다면 성폭력에 한하여 적용방식을 달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고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국가적인 것도 있으므로 성폭력에 한하여만 적용을 배제하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석탑추추

불일 때만 '내 대자보' 인가요

'x월 xx일 자진 철거하겠습니다.'

경경대 후문, 노벨광장 등에 게시된 수많은 대자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부터 학생회에 대한 고발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자보의 끝에는 하나같이 자진 철거 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철거 기한을 훌쩍 넘긴 대자보들도 더러 붙어 있다.

대자보는 오랜 시간 여러 이슈에 대한 여론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2013년 겨울,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는 코레일 노동자 부당하고,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 등을 짚으며 사회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 2016년 여름, 경제학과 단독방 언어성폭력사건 또한 대자보를 통해 터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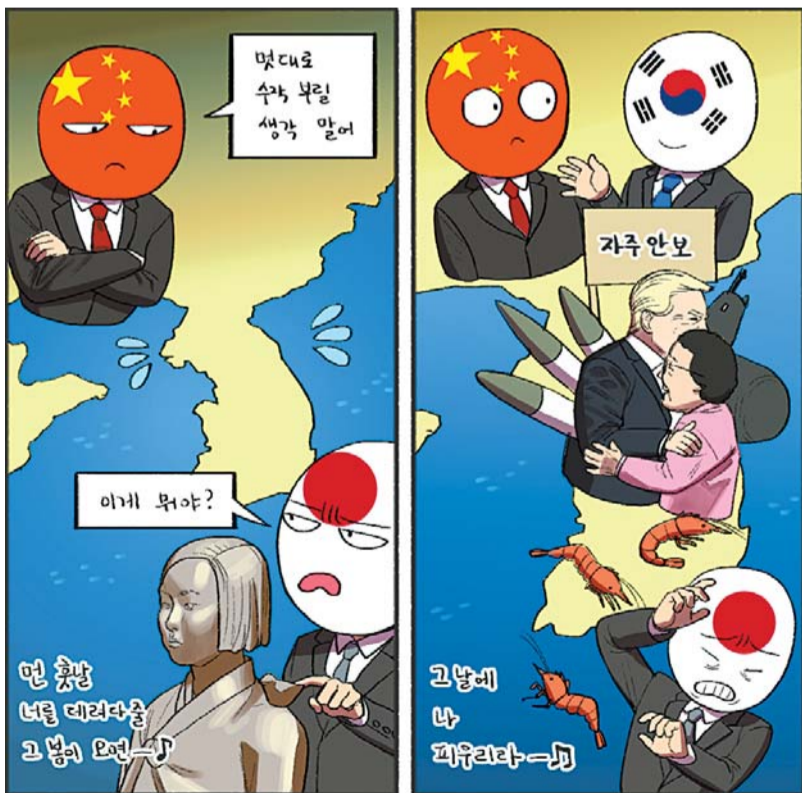
하지만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식엔 인문이 든다. 한정된 게시판에 새로운 대자보가 게시되면 작성자 스스로 철거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철거 기한을 훌쩍 넘긴 대자보는 여전히 붙어 있고, 새로운 대자보는 그 위에 덮인다.

작성자가 스스로 꼭꼭 눌러 쓴 자진 철거 기한, 자신이 쓴 문장에 끝까지 책임을 질 때 대자보가 갖는 의미가 온전히 전해질 것이다.

이민준 취재부장 lionking@

석탑만평

주재민 전문기자



고대신문사 The Korea University Weekly

1947년 11월 3일 창간	사회1부장 김해인	총무국	02-3290-1682
주간 매주 월요일 발행	사회2부장 서주희	FAX	02-928-0879
발행인	문화·학술부장 박운상	메일	press@kunews.ac.kr
편집인 겸 주간	사진부장 심동일	핸드폰	010-3363-1947
인쇄인	영상·웹진부장 이명오	페이스북	/kunews1947
편집국장	김교준	엘로이디	@고대신문
취재부장	조재석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이민준	세종 편집국	044-860-1888
			홍보관 2층

수레바퀴

페이커의 눈물

11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2017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이 막을 내렸다. 한국 팀의 내전이었던 결승전에서 '삼성 갤럭시'가 'SKT T1'을 상대로 3대0으로 압승을 거두며 우승했다. 2017 롤드컵에서 수많은 명장면이 탄생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박힌 장면은 '페이커의 눈물'이었다. 국내에서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페이커 눈물'이 이를 동안 올라가 있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페이커의 눈물이 화제가 된 이유는 페이커가 평소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페이커는 2014년 팀이 롤드컵 진출에 실패했을 때도, 2015년 MSI에서 준우승을 거뒀을 때도, 2017년 롤챔스 서머에서 준우승을 거뒀을 때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롤드

컵에서는 경기에서 패하고 준우승이 확정되자 흐느려 울었다. 결승전에서 페이커를 상대했던 삼성 갤럭시의 'crown' 이민호 선수는 로봇인줄 알았던 페이커도 사람이었다며 놀라워 했다.

항상 상대를 압도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로게임계의 우상인 페이커의 좌절은 전세계 e스포츠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 결승전을 직접 관람하기 위해 베이징 국립경기장을 방문했는데, 결승전 경기가 끝난 후, 페이커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자 주변의 중국인 관람객들은 크게 놀란 표정으로 '페이커'를 연호하며 응원했다. 심지어 다른 프로게이머들조차 한결같았던 페이커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허탈해했다.

를 빛나게 했다. 페이커는 국내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연봉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성공을 거뒀고, 세계 최고의 프로그래머라는 명예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분을 토해내던 모습은 페이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는지 보여줬다.

항상 현실과 타협하며 절망하기 일췌인 일상 속에서 보게 된 페이커의 눈물은 충격적이었다. 페이커는 독하다. 대회 결과에 좌절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법도 하지만 중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쉬지 않고 바로 연습을 시작했다. 비시즌일 때도 롤 이외의 게임은 일절 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기자신을 채찍질한다. 페이커의 다음 시즌이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되는 이유다.

이명오 영상·웹진부장 myeong5@

종단횡단

누구를 위한 삶인가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다. 바로 인간관계다. 인간관계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발생하게 된다. 호감으로 사귀는 사람도 있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사귀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다. 요즘 사회에서는 자기의 목표만을 위해

는 여자에게 "난 항상 멋진 일이 일어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와이프한테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일을 와이프에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멋진 일이 아니겠지"라 말한다. 인간관계를 가진 상대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상처가 없을 때 지속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도와주면 상대도 이에 보답할 것이다.' 과연 이 말이 맞는 것일까 고민한다. 이익만을 좇는 사회 속에서 나의 순진한 손길은 상대에게 그저 이용당한 도구일 수도 있다. 물론 인간관계는 순전히 이익을 위해서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배려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른 채 배려 없는 행동

을 들킨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익을 위해 그 사람에게 접근했다면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지구온난화로 세상이 뜨거워져 문제지만 사회는 오히려 얼어붙는다. 사람이 만나는 장소는 모두 가면무도회가 된다.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만 웃고 뒤에선 깔본다. 언제까지 가면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싫고 좋음은 있겠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배려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상호배려가 없는 인간관계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상처에 무너질 것이다. 상처로 물든 사회는 진심을 보여주지 않는 병든 사회로 식어가면서 더욱 차갑게, 아프게 만든다.

류승현 기자 ryus@